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 (1)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을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 (2)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 (3) 참 회개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 (4)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 (5)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535장. 주 예수 대문밖에

- (1)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 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 두니 참 나의 수치라
- (2)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류관은
그 이마 돌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네 죄라
- (3)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쏘나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6월 17일 (월) 기도 담당 : 전병천 집사

광 고

6월 북한선교의 달 행사 중, 새문안홀에서 14일 (금) 부터 공연할 계획이던 "연극"이
사정상 연기(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6월 15일 (토)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송 85장 다 같 이
기 도 최병호 집사
성 경 봉 독 예레미야 8:18-22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선지자 예레미야의 번뇌』 김명자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535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8:18-22>

18.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
들었도다 19.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
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
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
는고 하시니 20.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21.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
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22.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 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6월 15일 (토)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매일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완악한 육신의 세력에 저서 그 복을 놓치고 마는 유다 민족을 향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번민을 들으면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도 돌아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이 늘 주님을 향해 뜻대가 맞추어져 있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의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32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새문안교회를 인도해 오시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입당케 하셨사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에 입당하기까지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보게 하옵시되,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날로 더하게 하시며, 이 민족의 어두운 현실을 밝히는 등대되게 하옵소서. 미진한 많은 과제들도 잘 해결되어 감격적으로 헌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맡기신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모든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도 소명을 따라 충성되이 목회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로 하여금 교회의 모든 현안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문안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시며,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옵시며, 연로하신 성도들의 노후가 복되게 하옵소서. 중한 병으로, 혹은 각종 삶의 짐으로 지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온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간구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케 하옵소서.

하나님! 일제 식민지, 민족동란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조국에 경제적 부흥을 허락 하시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가 했지만, 작금의 현실은 대북 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들로 혼란과 분열과 불안의 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간절하게 구하옵나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만민이 보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